



숲에서 희망 찾는다



진안군은 2017년 새해를 맞아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산림 조성, 각종 재해에 안전한 산림 경영, 산림 소득 활성화 3대 핵심 목표 아래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밀원수림 조성 등 가치 있는 산림 자원 조성

진안군은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경제·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10억4,500만원을 투자, 260ha에 39만5,000본의 나무를 심어 대대적인 산림자원 조성에 나선다.

밀원수림 105ha를 조성해 산주와 양봉농가 소득증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편백나무 등 경제림 140ha, 꽃나무·헛개나무 등 특용수 조림 5ha, 폐경지 조림 10ha 등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생활권 녹색복지 공간 조성

아름다운 생활경관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로수 13.5km, 도시 숲 2개소, 명상 숲 1개소, 전통마을 숲 2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시가지 사계절 꽃길을 조성하고, 진안군 대표축재인 홍삼축제를 화려하고 정감 넘치게 해줄 국화·팬지 등 14종 453천본의 우량 꽃묘를 생산해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경영 선진화를 위한 임도개설

임도는 임산물의 반출과 입입의 합리적 경영관리에 기반이 되는 시설로 산림

되는 주요 등산로를 정비하여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진안군을 찾는 전국의 등산객에게 안전한 산행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운장산 등 5개산을 가보고 싶은 명산으로 만들기 위해 등산로 정비 사업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욕·풍욕·음욕을 즐길 수 있는 부귀관백 숲 산림욕장을 개장하는 등 산림휴양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생태복원과 마을경관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향면 상노 마을에 2017~2018년 까지 2년에 걸쳐 380백만 원을 투자한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자연적 경관 및 생태를 조성·복원하고 시설물 보안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

임업인들에게 대표적인 고소득 작목인 표고버섯 재배시설과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산양삼·고사리·더덕·도라지 등 임산물 7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식재비와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임산물생산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생표고, 산양삼, 꽃감 등 신산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생산자에게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해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한 임산물 생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군은 전체면적의 80%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산촌지역이다"며, "2017년은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산림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10억4500만원 투자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밀원수림 105ha·경제림 140ha 등 조성
숲 가꾸기 통해 산림자원 질적 개선 도모
가로수 심어 생활권 녹색복지 공간 조성
등산 환경 개선·휴양인프라 구축도

▲숲의 가치증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

군은 산림의 생태 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에도 큰나무·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 1,830ha의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자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공공 산림 가꾸기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1,600명(연인원)을 고용하여 수목관련 신속한 민원처리와 수집된 숲 가꾸기 산물로 빈곤층에 난방용 땔감을 지원하는 등 산림행정 만족도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재해예방, 지역산업의 진흥 역할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2017년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귀산 임도 임도신설사업에 5억2,800만원을 추가 투자해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개설되어 있는 임도 172km를 전수 조사하여 노면이 파손되거나 배수가 불량하고 사면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 구간을 보수 정비하여 임업생산성 향상, 산불·산림병해충 등 재해예방과 방제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방침이다.

▲등산 환경 개선 및 휴양인프라 구축

등산인구 1,800만 시대! 마이산이 조망